

대학 창업의 현 주소와 활성화 방안

2017. 2.

고 혁 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창업지원본부장)

대학 창업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C O N T E N T S

- 01 대학 창업활성화 필요성
- 02 대학창업의 현주소
- 03 대학창업 활성화 방안

강사소개

- (현)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창업지원단장, 창업지원본부장
- FRMKorea 외 2개사 창업

창업 교육 공간 'IH'...학생기업 25개 배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대학의 핵심 가치로"



학생 창업기업인 링크솔루션의 최근식 대표(왼쪽 첫 번째)와 고학진 한국산업기술대 창업지원본부장(세 번째) 등이 활짝 웃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대 제공

11월 경기 시흥시 시흥스마트밸리(옛 시화공단)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국산업기술대 캠퍼스. 대학 정문을 지나 왼쪽에 우뚝 솟은 18층짜리 기술혁신파크 건물에 들어선 이매지네이션하우스(IH·Imagination House)에선 여름방학인데도 교수, 연구원, 학생들이 더위를 잊은 채 창업 관련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창업보육공간이자 관련 연구소로 활용되는 이곳에서는 현재 15개 학생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에 여념이 없다. 3D 프린터를 생산하는 링크솔루션의 최근식 대표는 "같은 대학 출신 선후배 8명이 모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사신문
(2015.03.25)



한국경제
(2015.09.2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성과보도자료 : 동아일보 외 16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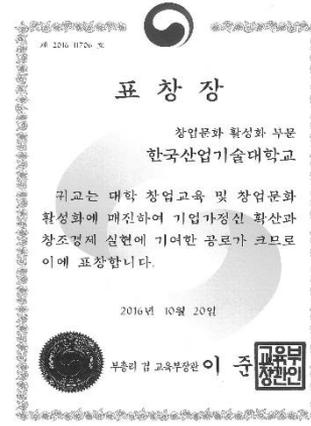


동아일보
(2016.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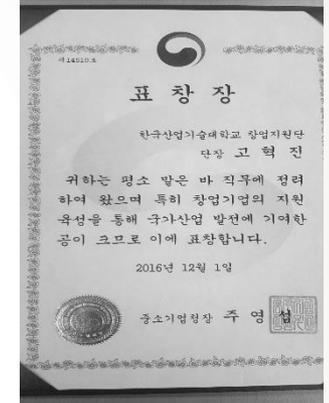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2015.02.20)

창업우수대학
교육부총리 표창(2016)



창업유공자
중소기업청장 표창(2016)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2013)

창업활성화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2013)

기술창업론(2015)

손에 잡히는 기업가정신(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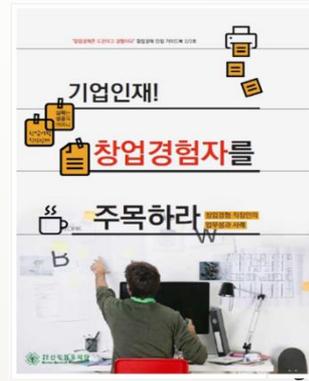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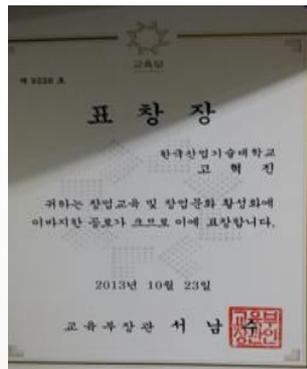
기업인재! 창업경험자를 주목하라(2014)

:: 비전과 전략, 8대 추진 과제

[그림 22]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전략

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p>1. 대학이 함께하는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량 강화</p> <p>목 표 2.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실패 용인 창업 지원체계 구축</p> <p>3. 지역대학을 지역의 창업인으로 조성하고 창업인재의 사회문화 마련</p>	<p>추진 과제</p> <p>1. 창업 인재를 위한 대학 교육제도 개선</p> <p>2.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p> <p>3. 창업교육 전담조직 및 전문강사 확보</p> <p>4. 학생창업 도전 환경 조성</p> <p>5. 학생창업도전의 목적적 지원</p> <p>6.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강화</p> <p>7. 지방대학의 창업역량 강화</p> <p>8. 창업 유망직 사회문화 조성</p>

· [비전과 목표] '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학이 함께하는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량 강화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실패 용인 창업 지원체계 구축 ▲지역대학을 지역의 창업 허브로 조성 하고 창업 문화적 사회문화 환경을 3대 목표로 내세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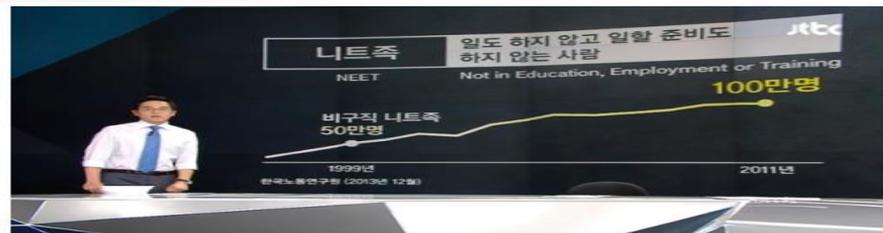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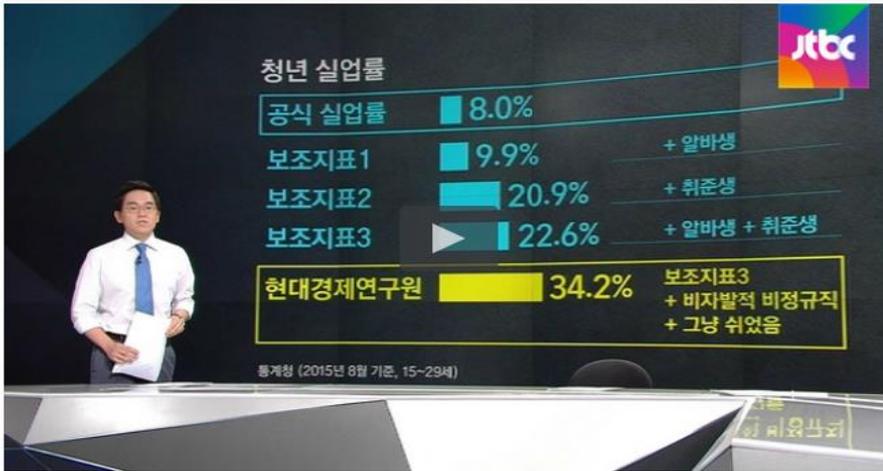
01 대학 창업 활성화 필요성

청년들, 취업이 안되고 있다.

뉴스 홈 >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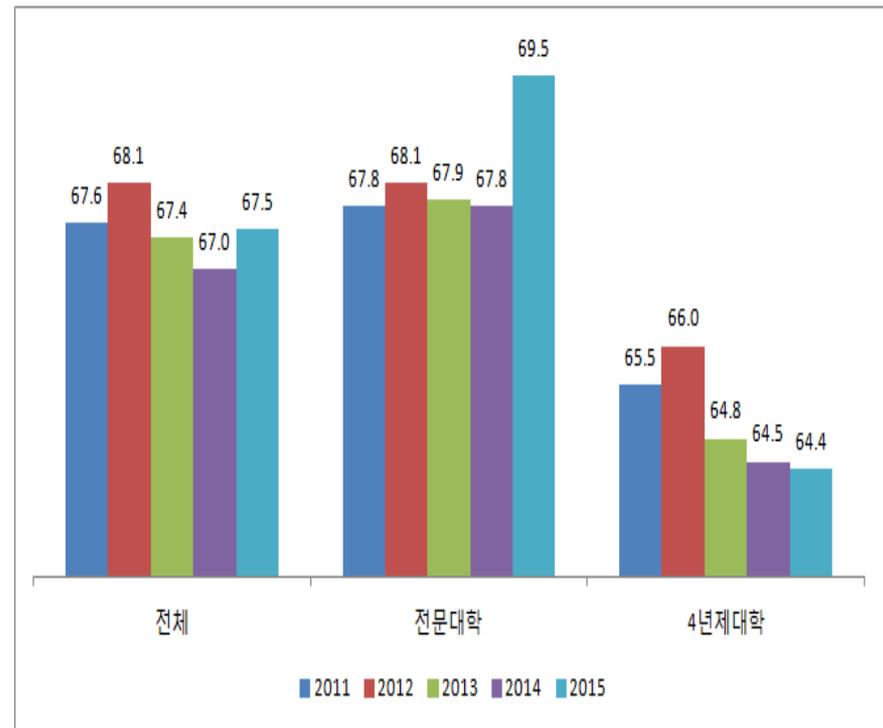
82 | Posted : 2016-06-14 11:45

현대경제연구원 "청년층 체감 실업률 34.2%"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56499

- 2015년 기준 대졸자의 취업률: 67.5%
- 4년제 대학: 64.4%
- 전문대학: 69.5%



출처: e-나라지표(통계청)

안타까운 점은 일자리 감소가 구조적인 부분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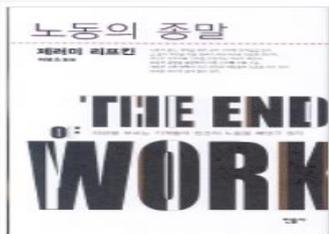
✓ 미래학자들은 (기술혁신 ⇒ 자동화 ⇒ 일자리 감소)될 것이라는 일관된 견해 제시

2013년 영국옥스퍼드대학의 연구

2025년 미국에서는 자동화로 인해 2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로봇 대체 현상으로 인해 총 9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일자리보존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창조적이며 사회적인 기술의 습득이 필요

영국 중앙은행 할데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봇 도입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8천만명과 1천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2015년 11월 30일 연설)



리프킨의 저서 '노동의 종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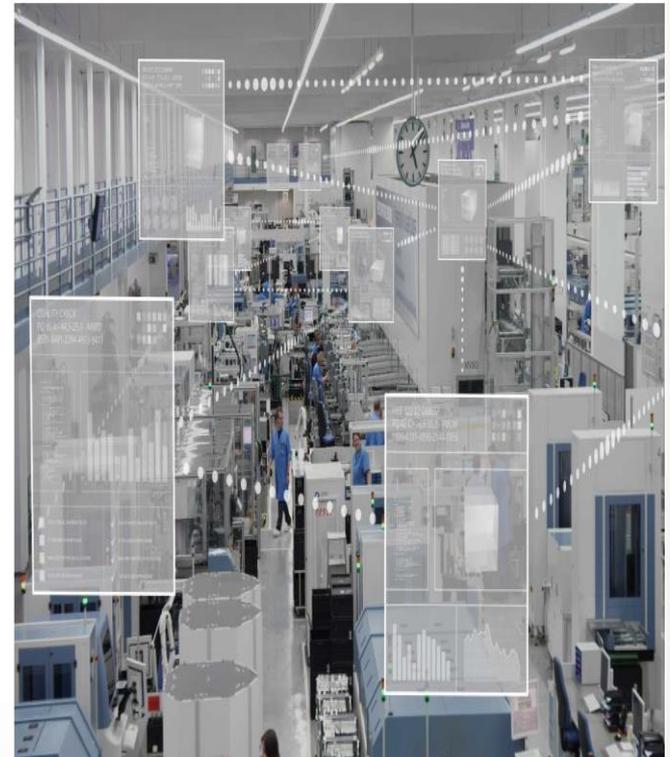
첨단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혁신 등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주장

(Science Times, 2013. 7. 22)

클라우드 슈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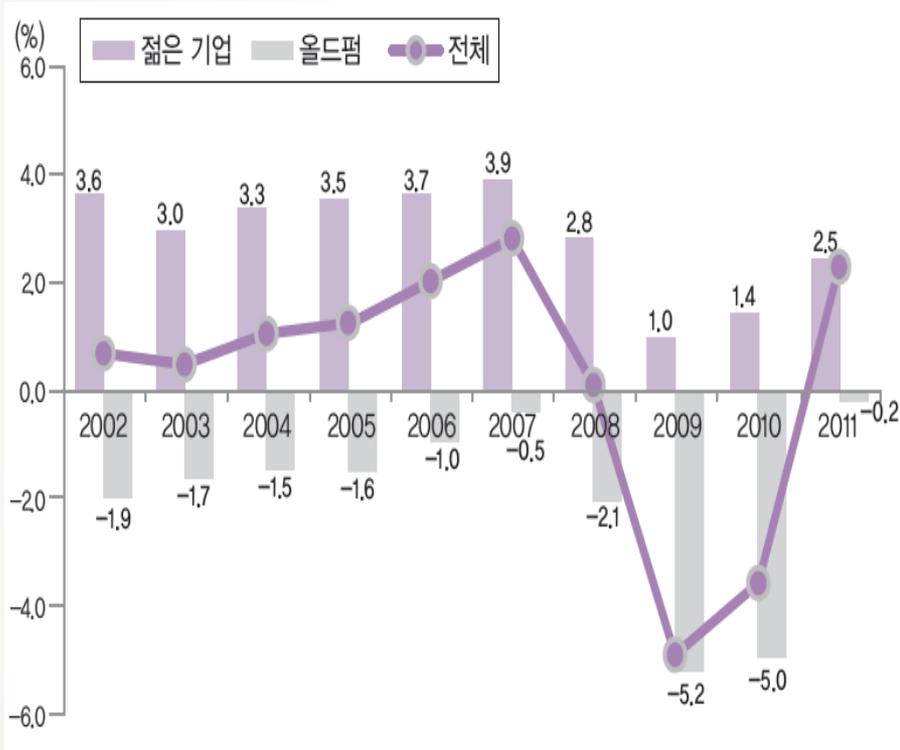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是我们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바꿀 것" 이라고 단언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향후 5년간 전세계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세계경제포럼, 2016)

-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부품공장
- 25년 전에 비해 생산량 8배 증가
- 일자리는 1,000명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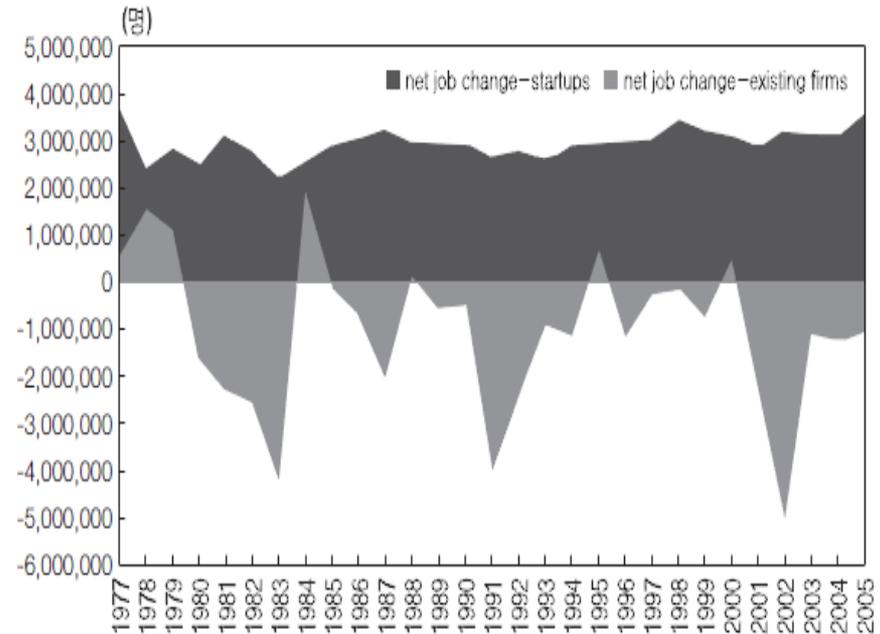


창업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 OECD(2013)에 따르면 2002년~2011년간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젊은 기업)이 신규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 순증가의 대부분을 차지: **젊은기업 평균: +2.87% / 올드펌 평균: -2.07**



〈그림 3-2〉 미국의 창업기업 고용창출 성과 변화 추이



- 출처: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OECD,2013), 일자리 창출의 엔진 젊은 기업(경기개발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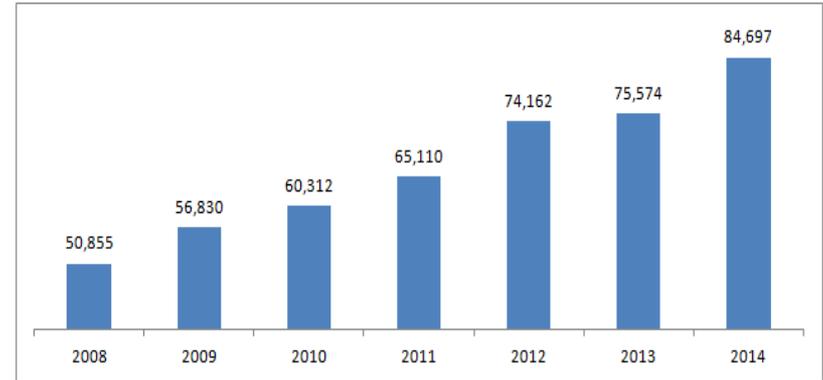
- 출처: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산업연구원, 2014)

우리나라고 창업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생존율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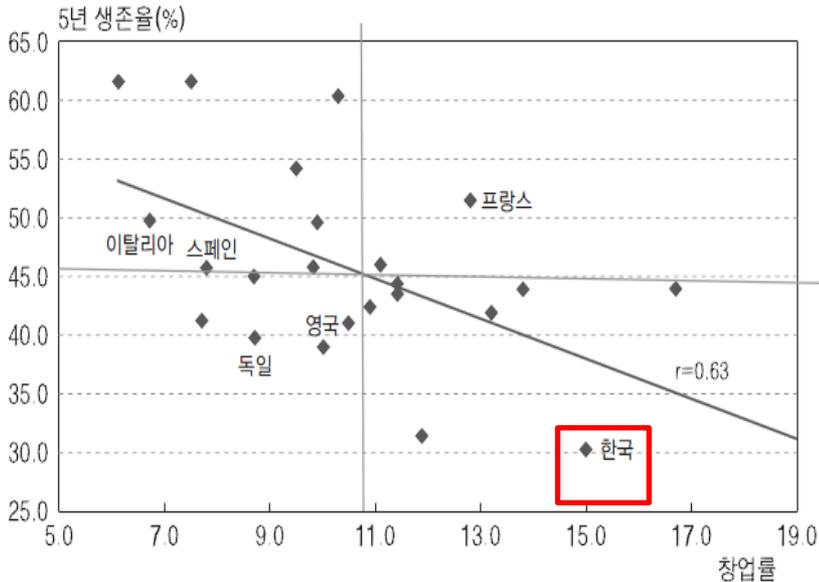
<생존률, 통계청>

산업분류	종사자규모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생존율	생존율	생존율	생존율	생존율
전체		61.3	48.4	40.5	35.1	29.6
	1인	60.0	47.1	39.3	33.9	28.3
	2인 이상	76.2	62.3	53.2	48.6	44.5

<연도별 신설법인 수, 통계청>



<그림 4-9> 국가별 창업률과 5년 생존율의 상관관계



<표 3-2> 창업기업·소멸기업·기존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추이

단위: 천명

연도	총고용 ¹⁾	순고용창출 ²⁾ (A)	창업기업(B)	소멸기업(C)	기존기업 성장-축소(D) ³⁾	(창업+소멸)/순고용창출(B+C)/A %
2006	13,449	-	1,251	-807	-	-
2007	14,176	727	1,275	-923	375	48.4
2008	14,548	372	1,286	-833	-81	121.8
2009	14,775	227	1,189	-838	-124	154.6
2010	15,761	986	1,208	-910	688	30.2
2011	16,583	822	1,273	-967	516	37.2
2012	17,148	565	1,275	- ⁴⁾	-	-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기업의 성장지원 ⇒ 창업기업 육성

- ✓ 대기업주도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방향 전환
- ✓ 성장의 유일한 대안 ⇒ 창업을 국가전략으로 채택



- 2009년 기업가정신을 국가혁신전략의 핵심과제로 채택
- 2011년 Startup America InitiativeSM를 발표



- 창업국가, 후츠파정신
- 대학생 60~70%가 창업을 희망
- 나스닥상장 이스라엘기업 70개, 일본 7개



- “대중 창업, 만중 혁신”(2015)
- 유니콘 기업 15개
- 매일 1만개, 2014년 기준 365만개



- 창업을 통한 제2 대영제국 건설
- 런던 북동부 슬럼가 ⇒ 테크시티
- 2,000개 기업 입주, 투자규모 2조



- 베를린을 유럽의 창업수도로
- 1992년 실업률 40% ⇒ IT창업허브 (2014년 투자유치 11억 달러)
- 창업자 나이 31세, 이민자 비율 48%



- 청년실업돌파구를 창업으로
- 하나의 큰 노키아 ⇒ 10개의 작은 노키아
- 알토대학 중심, 슈퍼셀, 로비오 등



- 칠리콘밸리 조성
- 글로벌 스타트업 신메카



- 중남미 창업거점화
- 국가창업원 신설(2013)



-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 초/중/고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Entrepreneurial University

- 대학이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의 제 3의 임무로 추가
-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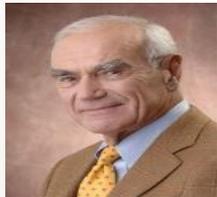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대학 운영에 있어 기업가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연구 및 운영의 방향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수 및 학생의 기업가활동을 장려**하는 대학

(Henry Etzkowitz, 2011, Burton Clark, 2001)

- 해외 유명 Startup 단지는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내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

- Silicone Valley(스탠포드대학), 中關村(칭화대), 실리콘와디(이스라엘), 베를린(베를린공대) 핀란드(알토대학)



스탠포드 대학이 없었다면, 실리콘밸리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엔지니어링 기반을 갖춘 좋은 대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생산해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시장에 나오는 혁신적인 기술들은 대학에서 먼저 발견, 연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 드레이퍼 & 존슨 투자회사 빌 드레이퍼

- 특히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역할이 (기존기업의 인력공급) →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환이 필요

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업기업을 육성_미국

- 스탠퍼드대 졸업생이 설립한 기업은 4만여 개로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연간 540만개, 매출액은 2조7000억달러
 - 29%가 여성, 42%는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스티브발머), 휴레패커드, 시스코, 넷플릭스

우리나라 GDP
1조 4천억 달러

- MIT대 졸업생이 설립한 기업 중 운영중인 기업은 3만여 개, 창출한 일자리는 연간 460만개, 매출액은 1조900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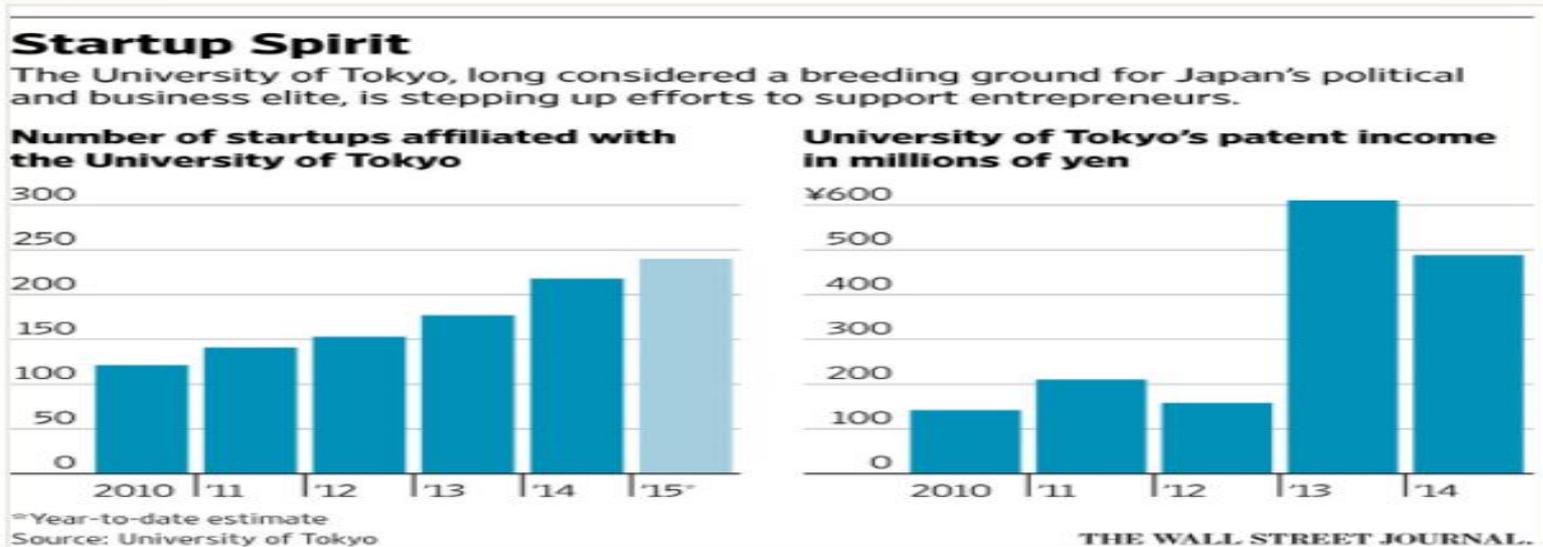
- 학생들은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
- 교수의 역할은 "문제해결을 위한 엉뚱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학생들에게서 이끌어 낼 것인가?"

MIT 출신의 창업 현황		자료: MIT	MIT 출신 창업 기업과 일반 신생 기업의 수명					
현재 운영 중인 기업	약 3만200개			MIT 출신의 창업 기업		일반 신생 기업		
연간 평균 스타트업	약 1000개		5년 이상 생존율	80%	>	50%		
창출된 일자리 (현재 고용된 직원)	약 460만 개		10년 이상 생존율	70%	>	35%		
연간 총매출	1조9000억 달러 (약 2147조 원)		MIT 출신들의 창업 당시 평균 나이 (단위: 세)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38	37	35	33	30	27
MIT 졸업생 중 창업가 비율			출입 후 3년 내 창업					
단위: %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8	1.9	3.9	5.8	7.5	12.0
			출입 후 5년 내 창업					
			3.4	3.3	5.6	8.2	10.6	12.2

- 출처: 동아일보 2016년 10월 20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업기업을 육성_일본

- 도쿄대 교수나 학생들이 창업했거나 대학 내에서 출범한 스타트업은 2015년 8월 현재 240여 개를 넘어섬
- 이는 5년 전인 2010년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 이 가운데 16개 기업이 기업공개에 나섰고 이들의 시가총액은 총 80억달러(약 9조4160억원)
- 도쿄대 에지캐피털(UTEC)은 대략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각종 창업을 지원. 창업이 늘수록 특허 수입도 증가(2014년 기준 4억8800만엔(약 47억 5673만원)으로 2010년에 비해 세 배 증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업기업을 육성_중국

- 대학생 창업비율은 '08년 1%에서 '12년 2%(약 13.6만명)으로 증가, 석사 학위 이상 창업자 1% 이상, 학사 학위 이상 창업자는 20%를 초과
- '대학생 창업 유도계획'을 통해 **2014-2017년 동안 80만명의 대학생 창업을 목표로 6개 통합시책을 제시**
- 2014년 9월 리커창 총리,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제창하고, 400억 위안(약 7조 2,000억원)의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조성
- 2013년 기준 중국 베이징대 기술지주회사의 매출액은 13조 8천억으로 790억원을 배당, 칭화대 매출은 8조 4천억으로 1508억원을 배당(서울대 기술지주회사의 매출액은 154억원으로 베이징대의 1/900)



유니콘기업 40개, 시가총액 179조

최근 우리나라는 왜 유니콘기업이 안 나오는가?

-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기업의 CEO는 대부분 대학교 때 창업을 경험



美 공대생 1~10등이 창업하는데... 한국은 취직 못하면 창업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
조선일보·서울대 IT대 공동기획

제3부 (3) 창업정신 없는工大

미국 스탠퍼드대·MIT 등의 교수들은 논문을 써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대신 창업이나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 성과가 일어나는 걸로 보는 지평선을 획을 긋는다. MIT 경영대학원 빌 울렌트 교수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갖는 것보다 창업으로 증명해 보이는 게 저자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당노병 치료제 글리벡과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텐다를 개발한 스티브 소이어 교수가 로봇 회사 아이로봇을 창업한 로보틱스 교수처럼 백만장자가 된 교수들도 얼마든지 있다. 교수들의 성공적인 창업은 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창업에 뛰어들게 만든다. MIT 출신들은 2014년말 총 30220개 기업을 창업했고 이 기업들의 연 매출은 2조 달러(약 2600억달러)에 달한다. 스탠퍼드 출신도 3만9900개를 창업해 연 매출 2조7000억달러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조3779억달러의 2배가 넘는 매출을 두 배하여 일컫는 것이다.

◇창업하면 연봉 깎는 대학 반면 한국 공대는 여전히 '학문의 전당'을 추구한다. 창업이나 신화영력을 어필할 배양지 사(私)를 추구할 수 있도록만 여건. 최근 들어 신화 활동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내부 규정이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서울대의 경우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창업 학기를 받더라도 기업 활동 시에는 교내 연구 활동 시간의 5분의 1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교수가 창업하면 기업 성과와는 상관없이 2~3년 차는 연봉의 70%, 4년 차부터는 절반만 준다. 이외에는 창업을 한 몇 달이 상해하면 기업을 완전히 창산한 뒤 3년 이상이 지나야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공대들은 창업하는 교수는 물론 학생에게도 일정 기간 연구비를 보장해 주며 자기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소위 스타워터-로잔공대의 '이노그랜드' 제도가 대표적이다. 휘리릭공대의 박형규 교수는 "이노그랜드 제도를 거친 교수가 학생 창업의 5년 생존율이 90%에 이른다"면서 "창업이 불가능한 것은 공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라고 말했다. "논문 수"를 증명하는 평가 시스템은 한국 공대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교수나 대학 부처 연구 성과를 상용화하기보다는 논문을 내고, 논문 실적을 내세워 연구비를 따는 것에 방목 집어 있다. 차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논문을 자신의 노후유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인데, 상용화될 기술을 단련하는 공개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최소한 공대는 논문보다는 기술이전 실적이나 특허 수준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제는 창업, 한국 인제는 대기업" 교수와 학생들은 창업을 두려워하고 도전하길 꺼린다. 차주원 서울대 화학성 불공학부 교수는 "미국의 스탠퍼드나 MIT 출신 상위권 학생들은 모두 창업을 하고, 그다음부터 대기업에 간다"면서

스탠퍼드대 출신 창업 기업 2년 매출이 한국 GDP의 2배
美교수는 기술이전으로 평가 한국은 논문 수로 평가받아

한국 교수는 창업하면 연봉 삭감 기업활동 시간도 20%로 제한

"반면 한국은 문무대 10등까지 대기업 입사를 하고 아무 곳에도 취직 못 한 학생이 창업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박연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과 부총장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창업보다는 취업이나 유학 등을 권하는 것이 학생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패와 성공 어느 쪽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 이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공대들은 학생들이 어디든 어떤 가지고 오면 회사를 설립할 방법을 알려주고 부자까지 찾아준다. 학생을 이 원하는 창업과 관련된 교육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성철 포스트 생명과학 교수는 "미국 대학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무료로 부양되기까지 케어되어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결국 기술 상용화 시기를 놓쳐 실패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말했다.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어 교수와 학생은 형식의 명예에 부끄러운 '브레머'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박건형·김강한 기자



MIT 졸업생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 MIT 학과에서 교수인 학업이 기업 창업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MIT에서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창업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문무대 기업에 대한 실적은 로보틱스 분야 MIT 교수가 창업한 그 정도를 포함 특자적으로 학생 미국 로봇 산업에 이끌고 있다.



朝鮮日報 2016년 10월 06일 (목) 종합 0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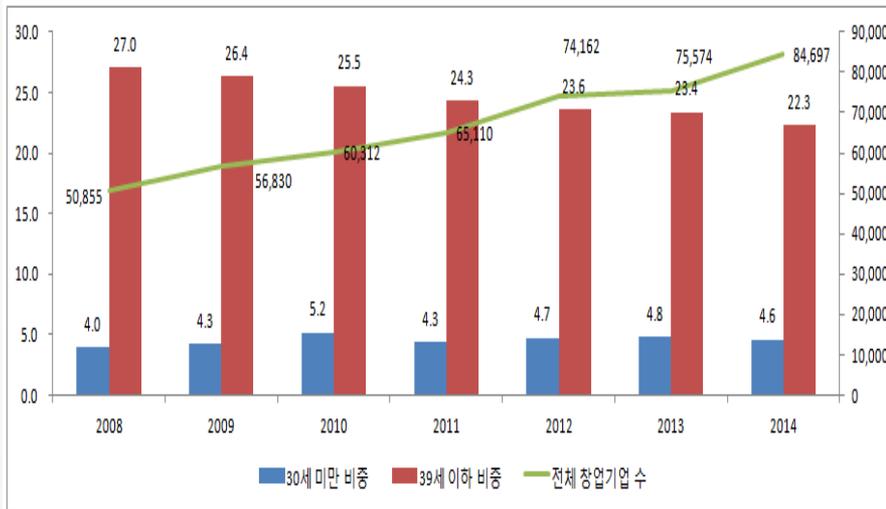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2013년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창업자가운데 25세 이상 34세 미만의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57%를 차지

02 대학 창업의 현주소

청년창업 현황

- 창업기업 수는 늘어나지만 20대 창업비중은 절대적으로 낮고, 30대도 감소 추이
-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 간 비교에서도 청년들의 창업순위는 최하위 수준
- 20대와 20대 생존율이 절대적으로 낮고, 생활밀착형 창업이 대부분

<창업기업 수와 청년창업 비중,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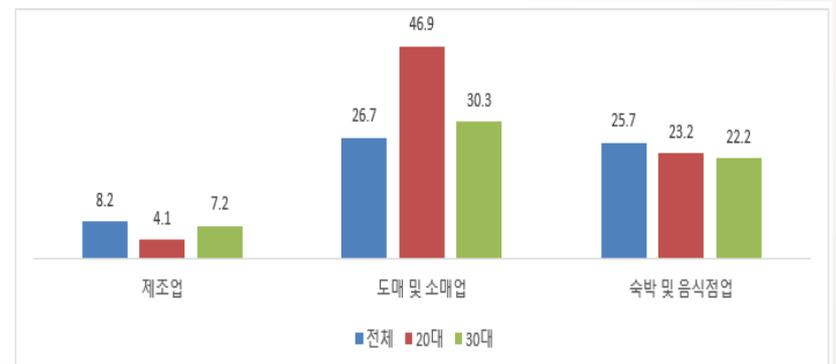
<창업기업 수와 청년창업 비중, GEM 2015>

구분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순위	59위	58위	44위	16위	15위

<창업기업의 생존율,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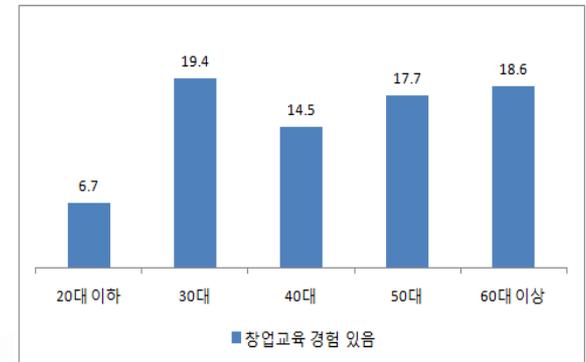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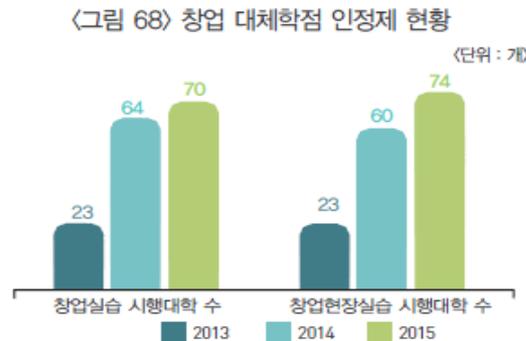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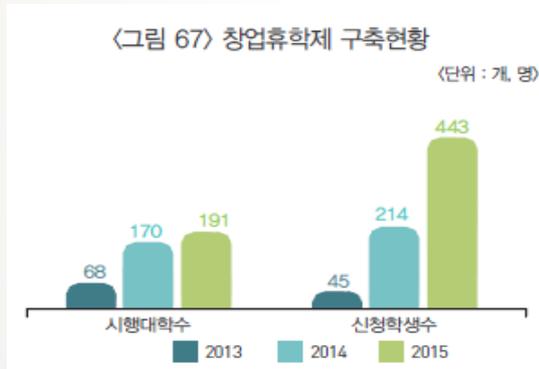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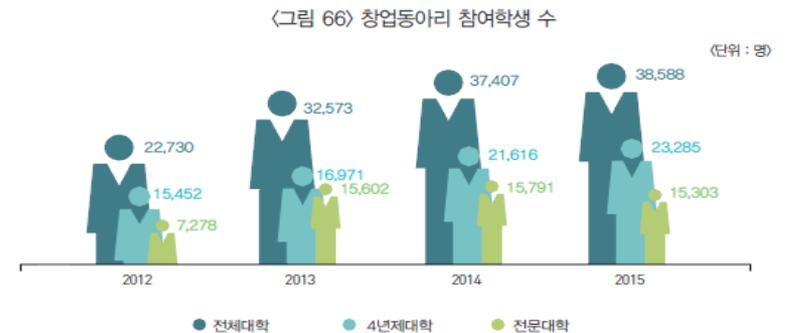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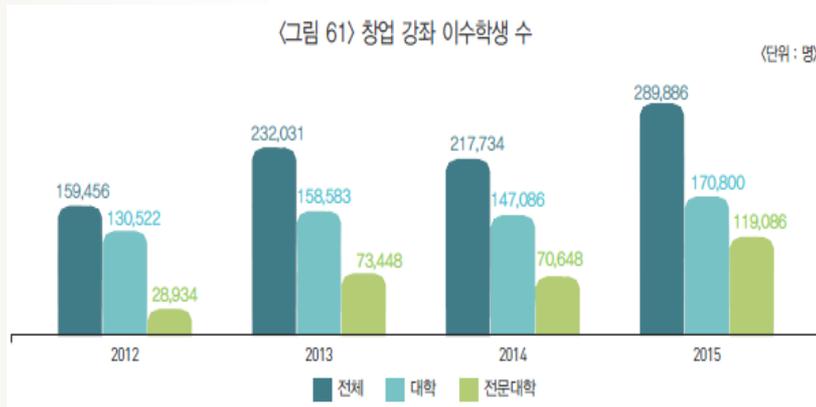
<창업기업의 창업업종, 통계청>



대학창업 교육 현황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대학의 창업교육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20대 창업가 중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은 6.7%에 불과

- 창업강좌 이수 학생 수: 289,886명, 창업동아리: 38,58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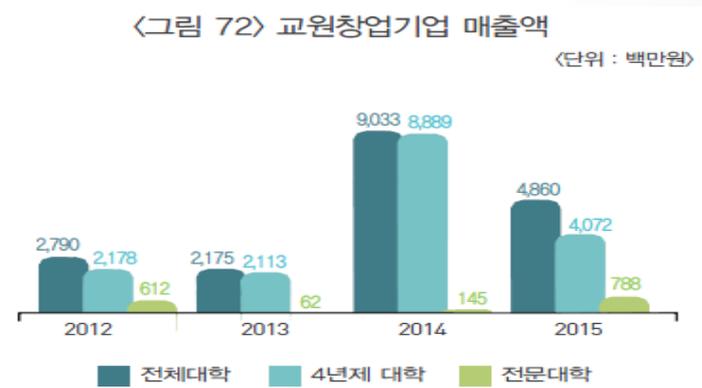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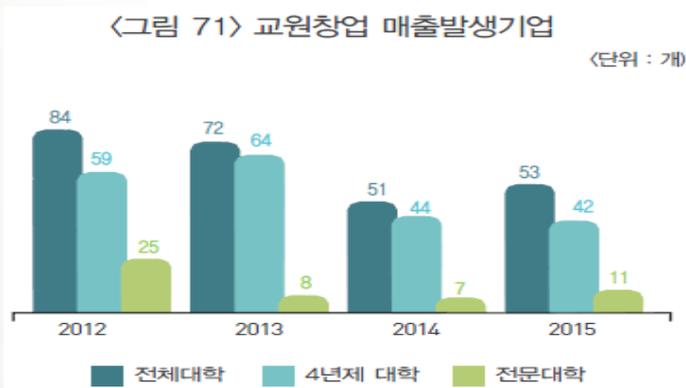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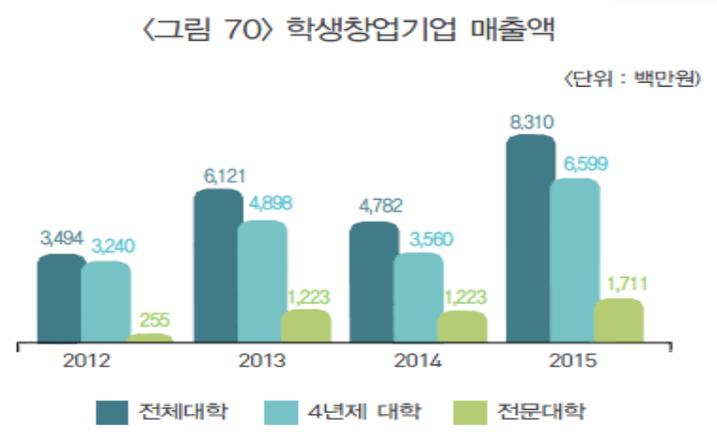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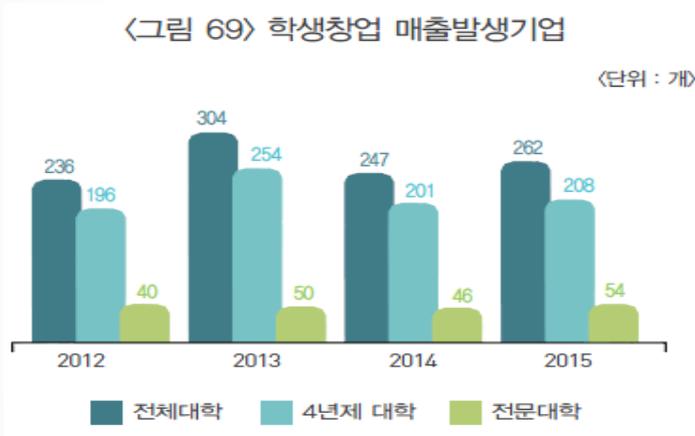


- 출처: 2015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출처: 2015 창업기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중소기업청) 18

대학창업 현황

- 창업교육은 양적 증가에 비하면, 대학생 창업기업 수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창업 기업 수 861개, 매출발생 기업 수: 262개)
- 대학원 창업현황은 파악조차 안되고, 교원창업은 오히려 감소 중



청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

- 청년응답자들은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실패의 두려움'(35.7%)**을 가장 많이 지적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4월)
 - ※ GEM 201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42.3%로 혁신주도 경제국가 26개국의 평균인 38.2%보다 높은 수준
- 청년응답자의 **59%**는 우리나라 사회가 **창업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청년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4월)
- **'나의 자녀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라는 의견에 **52.1%**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응답. 반면 이미 창업한 사람들의 경우 자녀의 창업에 대해 오히려 찬성하는 비율이 63.3%로 높게 나타남(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현대경제연구원, 2014)
- 우리나라는 창업 실패가 기업 파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응답이 92.2%**(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현대경제연구원, 2014)
-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는 비율이 **75.5%**임(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현대경제연구원, 2014)
 - ※ 미국 실리콘밸리기업의 경우 평균 창업횟수는 26회로 2번의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을 사회가 부담할 필요
- 우리나라의 **창업 여건에 대해 86.4%가 나쁘다고 인식**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현대경제연구원, 2014)

희망은 있다.

✓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도전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늘어나는 중**

- **창업 1년 이내 창업기업과 종사자수 비율(13.6%)이 창업 선진국인 미국(9.5%)에 비해 높아, 우리 경제가 창업을 통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2014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보도자료, 중소기업청)
- **최근 청년 3명 중 1명 정도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청년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4월)
-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중 창업부문에서 2014년 17위를 기록하여 2008년 대비 109단계 성장**
(청년 창업가의 성공 DNA를 찾아라, 한국무역협회, 2014)

✓ **20대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활성화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인식**

- 20대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창업을 하는 '**기회 추구형 창업**' 비중이 **42.9%(평균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생계형 창업은 13.6%(평균 25.4%)로 가장 낮게** 나타남
(2014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 '**청년창업 활성화가 청년실업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59.4%가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청년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4월)

정부, 국회도 청년창업 활성화, 특히 대학 창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 홈 > 정치

56 | Posted : 2017-01-22 18:04

황교안 권한대행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 ... "청년창업 적극 추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YTN, 2017.1.22)

【경제】 일자리가 憂國이다 게재 일자 : 2017년 1월 16일 (수)
 매달 '창업 활성화 장관회의' 개최... 18개 관계부처장 참여



창업 활성화 위한 4-UP 전략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붐업	Boom-UP	창업 붐 확산 및 전국민 관심도 제고, 범 부처 창업경진대회
빌드업	Build-UP	온/오프라인 창업·혁신 플랫폼 고도화, 창조경제혁신센터 허브 역할 강화
스타트업	Start-UP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학 기술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Scale-UP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 지원 시스템 강화, 3조5000억 원 벤처 펀드 신규 조성



"미국 이수선해도 경제 살려야"...정부, 창업에 '올인'
 신규 벤처펀드 3,500억 조성...기술창업 5단계 달성 목표
 (서울뉴스1) 박원진 기자 | 2017-01-18 10:50 송고 | 2017-01-18 11:15 최종수정

기사보기 구독신청 댓글 공유하기 뉴스 + - 축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영문관광호텔에서 열린 '2017년 1월 15일 창업을 위한 4-UP 전략' 강연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7.1.15. 뉴스1

예비 창업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대학을 통한 창업 붐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와 손잡고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가칭)을 만들어 '대학발(發) 창업열기 띄우기'에 나선다. 1500억원

정부, 국회도 청년창업 활성화, 특히 대학 창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월 14일 국회 상정)

"창업은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 하는 과정"

[더민주 청년일자리TF 입법공청회] 일자리가 곧 삶이다 ②

전혁수 기자 | 승인 2016.08.12 10:15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한민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TF가 '일자리가 곧 삶이다'라는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청년일자리TF는 발의를 앞둔 '청년 첫 일자리 지원 특별법'과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이견은 드러내지 않았다. 김경수 의원이 준비 중인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발제를 맡은 고혁진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지원본부장)는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이 60%가 채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미스매치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는 구조적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형성의 축은 기존 기업의 성장과 창업기업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지금은 창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고혁진 교수는 "OECD에 따르면 2002~2011년까지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이 신규고용을 주도하며 순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6년 이상 기업은 매년 일자리 순감소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기업의 창업가가 대부분 대학 시절 창업을 경험한다는 고혁진 교수의 자료. ©미디어스

김수민, 스타트업 피칭·투자 유치 위한 국회 행사 개최

24일 국회의원회관서

f t @ # + -

최대만 기자 dmchoi7787@hanmail.net

웹툰고시간 2017.01.22 16:04:29 최종수정 2017.01.22 16:04:29

[충북일보=서울] 국민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셜 스타트업, 신선한 상상력으로 대한민국의 고민을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스타트업들을 소개하고, 정부와 스타트업 간 애로사항과 협업 방안을 토론한다.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월 14일 국회 상정)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중소기업청장은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6조).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에 있어 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구매 계획에 청년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9조).
- 마. 청년의 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한 조달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정부는 소규모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서비스 거래의 활성화,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03 대학 창업 활성화 방안

청년에 대한 정의? 법적인 나이 조정(34세)이 필요

청년의 기준(나이)에 대한 기준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원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 단 세제지원은 종전대로 15~29세로 국한된다.↴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 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 ※ 일본과 유럽은 15세~24세, 미국은 16세~24세.↴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지원 예산 확대

진 단

◇ 창업지원사업 중 사업화 비중은 높으나 (46.6%, 2,869.7억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

- 창업지원사업은 7개 영역에 6,158억원이 배정

- 사업화를 위한 예산은 2,869.7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

- 이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총 671.5억원 수준*이나, 20대와 30대 창업 비율을 고려하면 20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114.8억원 수준**으로, 1인 당 5,000만원 지원을 가정하면 230명 정도 지원 가능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500억과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21.5억원, 창업인턴제 50억 총 671.5억원 수준

** 2014년 기준 20대 창업비율 4.6%, 30대 창업비율 22.3%. 이를 환산하면 20대 창업비율은 17.1%로 계산

개선방안

◇ 청년창업지원을 인적 R&D 투자로 인식을 전환하고,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R&D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

- 우리나라 정부 R&D는 15.3조원 (2014년 기준)으로 10%를 창업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 1.53조원 수준(자금의 2.5배 수준)으로 늘리고, 사업화 지원을 50% 이상으로 유지

창업지원사업 지원 형태 혁신

진 단

- ◇ 모든 사업이 3년 내지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
→ 상대적으로 매출 등 단기성과에 취약한 **창업 이전 단계의 청년들이 지원사업을 수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 ◇ 정부지원 사업비에서 본인 인건비를 받을 수 없음
→ **자본 축척이 없는 20대 청년들의 경우 정부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생계 부담 여전**
- ◇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평가 항목이 매출, 고용, 수출, 투자 등 창업기업 속성과 부적합 → 좋은 평가를 위해 **굳이 정부지원이 필요 없는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 (도적적 해이)**

개선방안

- ◇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지원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20대와 30대, 예비창업가와 기창업가를 구분한 전용 트랙**을 만들어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 재설계
- ◇ 청년들의 **생애 첫 창업**의 경우 자본축척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통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에 대한 평가구조를 매출과 고용 등 성과 중심의 정량평가 ⇒ 지원노력, 지원 인프라 등 **투입과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창업 도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기업들이 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기 시작, 조기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확대

Chosun Biz
2016. 9. 5 (월)

뉴스 증권 부동산 정책·금융 **기업** Weekly Biz 오피니언

기업 > 취업창업채용
취업창업채용

대기업 들어가려 '스펙용 창업'... 3분의 1이 매출 제로

성호철 기자 | 이해리 인턴기자(연세대 심리학과 졸업)

기사 100자평(0)

입력 : 2016.08.22 03:05

[대학가 창업 열풍의 이면]

자기 돈 안들이고 지원 받아 창업
대학 창업 동아리 가입 이유로 "스펙 쌓기용" 거리낌 없이 대담

한 아이템으로 2곳 지원금 타도... 흥피만 잘 꾸미면 문제 안생겨
정부 지원 제도부터 개선해야

대학생 박모(26·4학년)씨는 지난 6월 운영하던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의 문을 닫았다.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서다. 박씨는 작년 하반기에 대학생을 위한 스마트폰용 메모장 앱(응용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고 사업을 접었다. 창업은 실패했지만,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다. 창업에 들어간 비용과 사무실 임차·운영 비용은 학내 창업보육센터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지원기관에서 지원받아 충당했다. 박씨는 "솔직히 내 아이디어는 사업성이 별로 없었다"며 "주변에서 대기업에 취직하는데 '창업 경력'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해서 창업했을 뿐"이라고 했다.

◇어학연수보다 좋은 스펙이 된 '청년 창업'

서울의 H대에 다니는 김모(29)씨는 취업 3수 끝에 올 3월 IT 기업에 취직했다. 경력에 쓴 '온라인 음식 주문 서비스 창업 멤버'가 큰 역할을 했다. 김씨는 3년 전 Y대, K대 선후배와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이들은 개발이 어려운 앱이 아닌, 간단한 온라인 홈페이지만 만들었다. 이 서비스는 6개월 만에 사라졌다.

창업은 실패했지만 멤버들은 성공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있어 당시 취업 준비생이었던 선배 3명은 대기업에 취직했다. 이 스타트업의 한 참가자는 "선배 한 명은 이름만 올리고 처음부터 스타트업에 아예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창업 스펙이 잘 먹혀 당시 멤버 8명 중 한 명 빼고 모두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말했다.

창업동아리 수	6000개
창업동아리 회원 수	5만명 이상
돈 버는 창업기업은 드물어	
대학생 창업기업 수	750개
매출 한 푼도 안 나는 창업기업	267개
연간 평균 매출액	1223만원
평균 고용 인원	0.8명
1사당 정부 지원금	5280만원
※2016년 3월 말 기준	

자료: 중소기업청·대학알리미

실제로 대학가(大學街)에 부는 창업 열풍의 이면에 '스펙용 창업' 거품이 끼어 있다. 현재 전국 200여 대학에는 6000여 개의 창업 동아리가 있고, 회원 수만 5만명이 넘는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 정보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작년(2015년 4월~2016년 3월) 대학생이 세운 창업기업 750개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매출이 한 푼도 나지 않는 휴면(休眠) 상태다. 고용도 거의 없다. 대학생 창업기업 1곳당 평균 고용 인원은 0.8명이다. 상당수가 '스펙 쌓기용'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Y대에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한 대학생은 "창업 동아리에 들어온 대학생들이 가입 이유로 대기업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

해서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창업 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청년창업가는 창업활동을 군생활로 대체하거나, 이스라엘처럼 군대를 창업인큐베이터로 육성

- 현재 대체복무제도의 산업기능요원의 일정 T/O를 창업기능요원으로 배정

교원이 학생 창업을 응원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교원의 경우 승진, 인센티브 등을 받기 위해서는 SCI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 SCI 논문의 성과는 지도학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학생의 창업이 반감지 않은 상황

→ 지도학생의 창업을 응원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창업이 교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구조 설계가 필요

“잘 키운 학생창업기업 하나, 열 SCI 안 부럽다”

<표 4-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례(예시)

영역	지표	배점	세부내역
2-8 (창업)	교원 창업	100	- 최초 창업 1회에 한함
	지도학생 창업	30	- 최초 창업 1회에 한함
	교원 창업기업 학생 취업	10	- 점수×학생수로 창업교원에게 부여 - 연도별로 누적 적용
	학생 창업기업 학생 취업	5	- 점수×학생수로 창업 지도교수에게 부여 - 연도별로 누적 적용
	로열티	20/100만원	- 로열티×20점/100만원 (년 200점 상한)

- 창업은 마켓타이밍이 중요한 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 근속하지 않더라도 연구년 신청이 가능한 “창업연구년제도” 확산

- 창업연구년: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최소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창업(준비)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받고, 졸업할 수 있는 학사제도를 확산

- 대학원을 중심으로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창업을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창업프로젝트 트랙 도입 및 확산

산학협력 프로젝트 석·박사과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및 창업 프로젝트를 학점으로 인정받고, 졸업요건으로 논문 대신 기술이전 및 창업 결과물로 대체하는 석사학위과정 - (재직자)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자산실사,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치평가,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하여, 실제 기술이전이나 창업으로 연계하여 성과를 창출 - (비재직자)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수행 					
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졸업요건
일반석사	9학점	9학점	전공심화(8학점) + 논문(1학점)		논문
프로젝트 석사 과정	12학점	12학점	기술이전	전공심화(9학점) + 기술이전 프로젝트(1학점)	기술이전 결과물
			창업	전공심화(9학점) + 창업 프로젝트(1학점)	창업 결과물

- 대학 산학협력 실태 조사보고서에 대학원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영

대학의 액셀러레이팅 역할 강화를 통한 학생창업기업 성장 지원과 수익 공유 체계 마련

- 현재는 대학이 대학(원)생 창업을 응원해도 학교에 남는 것이 없어 지속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구조적 한계
 -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자본금, 운용 전문인력의 부재, 자회사 투자 시 20% 이상 취득 등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
- 20대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타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으로, 창업 이후 투자연계 지원이 필요하나 민간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학생창업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상황
 - ⇒ 현재 교육부와 중기청이 진행하는 「대학창업펀드」*를 확대하여 데쓰밸리의 학생창업기업으로의 적극적 투자를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
 - * 대학이 조성한 개인투자조합 자금의 3배 자금 매칭 및 창업기업 대상 10년 이상 투자 유지. 대학별 정부자금 30~50억원 내외
 - ⇒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한도 20%를 학생 및 교원창업기업 투자 시 10% 이하로 낮추도록 개선(산촉법 개선 필요)

대학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대학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대학 내 “창업지원주택”을 확대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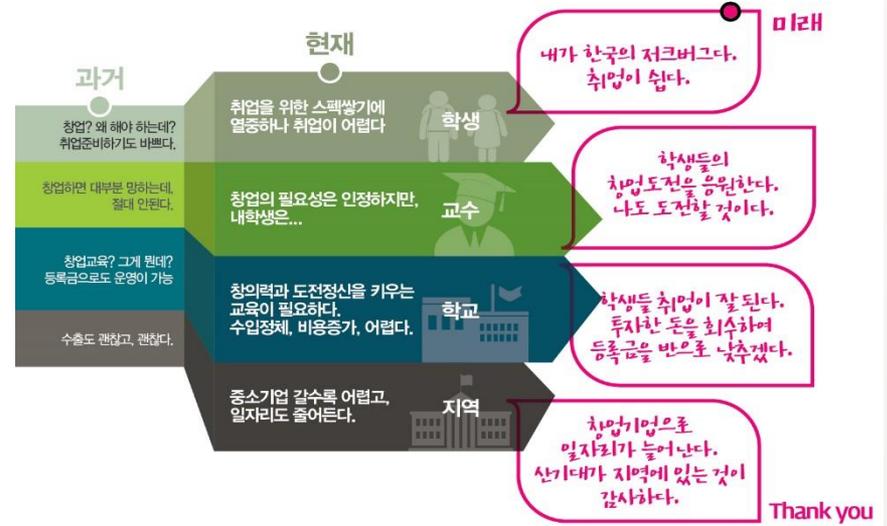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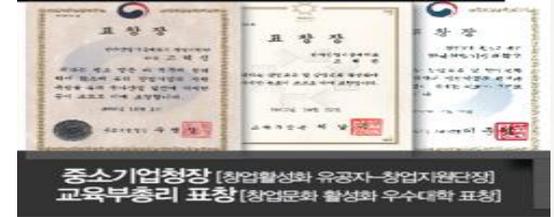
- 창업(준비)과정의 불편함 해소 + 선배창업가가 캠퍼스 내에 상주하여 후배 창업가에 대한 24시간 멘토링 가능 + 거주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창업몰입도 증가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창업지원주택 공급 근거 마련. 단, 입주자격을 1인 창조기업으로 한정 한 것은 개선 필요

●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창업 준비에 필요한 장비를 집적화 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하여 운영

- 정부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은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내 창업 저변 확대를 유도(미국의 Techshop 벤치마킹)
 - ◇ (메이커 운동) 일반 대중이 스스로 제품 서비스를 구상 개발하는 창작운동으로, 최근 세계적인 제조업 혁신과 연계되어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
 - ◇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기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갖춰놓은 작업 장소

대학 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학생 창업기업 57개,
- **223명 신규고용 창출,**
- 1억 이상 매출 기업 13개
- **윤원수 교수(기계공학과)**
- 125억 펀딩 완료
- 32명 고용(본교 7명)



대학 창업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2017. 2

고 혁 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감사합니다.